

즉 Virchow는 기계론적으로 질병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세포란 생명단위를 사용하였고 이것이 즉 세포학설이다. 이 세포학설이 기계론적이라는 점에서는 엄격히 따지면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형태학적 기계론 내지 생물학적 기계론이라는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가 가장 극복하려고 했던 액체학설의 잔재가 그에게 있어서는 남아 있어 Cytoblastema(cell form-fluid, 세포형성액체)가 모든 세포의 모체로서 connective tissue cell(결체조직 세포)로 탈바꿈하여 염중에서는 백혈구 삼출을 부정하고, 중앙에서는 상피조직의 유래를 거부한 것 같은 과오의 근원이 되었다.

즉 세포병리학의 기계론적인 설명의 중심이 결체조직 세포이고 그 세포의 기능적인 면으로 Goodsir의 영양학설을 여기에 통합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그 책을 Goodsir에게 바쳤다. 이제 필자는 이 비르호우의 기계론적인 생각을 그의 「세포병리학」의 제 1장 세포와 세포학설 중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비르호우 본인의 주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것을 그의 저서의 간단한 내용 소개를 통해서 그의 일관성이 얼마나 실현되었는가를 소개할까 한다. 비르호우의 세포학설을 충분히 납득하고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에 앞선 액체병리학 및 신경병리학을 충분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 소개 후에 비르호우에 대한 과학사적·의학사적 비판을 보기 위하여 Störig(獨, 1954)와 Singer(英, 1959) 두 과학사가의 비르호우의 과학사적 위치 및 그 의미의 비판을 필자의 주장과 비교 고찰하고 나아가 의학사가인 Garrison과 세포병리학의 영문판의 해설을 한 Stanford대학의 병리학자인 Rather의 「비르호우 및 세포병리학에 대한 이해」를 소개하여 필자의 생각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비르호우는 자연과학발전사로 볼 때 의학 내지 생물학에 물리학적인 기계론을 세포란 형태학적 기계론의 단위로서 도입했고 에너지에 가까운 영양개념을 동시에 함께 도입하여 병적인 상태를 설명하려 했다.

밖에 안되지만 傳統醫學을 완전히 壓倒해버렸다. 現代西洋思潮가 西洋思想, 西洋의 科學의 限界나 矛盾을 自覺하고 東洋思想으로 풀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東洋醫學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고 있다.

東洋醫學과 西洋醫學의 差異는 東洋과 西洋의 思考方式을 그대로 反映한다. 即 東洋은 直觀的이고 全體的이고 自然的이고 西洋醫學은 分析的이고 部分的이고 人爲的이다.

比較研究해야 할 點은 東西醫學의 土臺가 되는 東西의 思考方式의 差異로부터 여기서 派生되는 病因論, 診斷法, 治療法의 比較가 必要하다.

2. 傳統醫學과 現代精神醫學

傳統醫學은 가령 最古의 漢醫書라고 하는 黃帝內經은 周易을 쉽게 풀이한 느낌이라 人體를 小宇宙로 보고 있고 現代西洋醫學이 到達한 最尖端의 思想들과 一致한다. 身體의 主人은 精神(神爲一身之主)이라는 것 即 이것은 西洋醫學에서 有機體(身體)는 大腦皮質이 支配한다 또는 神經內分泌組織이 支配한다는 思想과 一致한다. 全體的인 豫防醫學의인 傾向도 같은 傾向이다.

西洋醫學은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 中間에 아랍醫學 그리고 近代휴머니즘을 擡頭로부터 現代精神醫學이 프랑스革命을 契機로 人道主義思潮의 一環으로 나타났지만 東洋醫學은 東洋醫學의 바탕이 되는 東洋思想(道)自體가 最高極致의 휴머니즘이기 때문에 精神醫學의 요소가 길었다고 볼 수 있다. 西洋에서는 中世에서 18世紀까지만도 精神患者를 魔鬼로 몰아서 宗教裁判을 통해서 火刑에 처했다. 東洋에서는 病的 原因이 主로 마음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病을 예방하려면 마음을 다스리라 했고 以道疾病을 強調하고 있다. 五志相勝爲治라는 感情 사이에 力動的인 關係를 다루고 있어 現代精神醫學과는 이런 점에서 重要한 密接한 관련을 볼 수 있다.

醫師로서의 徐載弼

前 大韓醫學協會 會長 鄭 求 忠

傳統醫學과 現代精神醫學

延世大醫大 臨床教授 李 東 植

1. 傳統醫學과 現代醫學

傳統醫學은 所謂 漢醫學 또는 東洋醫學이라고도 한다. 現代醫學은 西洋醫學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西洋醫學이 本格的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不過 80餘年

1895年 美國 와싱턴 조지타운 理科大學을 卒業하여 B.S.가 된 徐載弼博士는 勤務하던 圖書館에 모였던 빌링스 大領과 檢査室長이었던 그레이大領의 勸告에 依하여 辯護士로 活動하고자 하던 생각을 버리고 醫科大學에 入學하였다. 그들의 勸告는 그가 正直하고 眞實하고 才質이 出衆하며 圖書館에서 勤務態度에 感動하였

으므로 博物館長이었던 리드大尉는 소재가 醫科大學 二學年때 볼티모어에 있는 잔즈 합킨즈大學教授인 Welch에게 細菌學 강의물 같이 갈 程度였다. 醫科大學을卒業하고 가필드 病院의 검사실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朴泳孝의 勸告로 歸國하여서 中樞院顧問으로 있으면서 獨立新聞을 經營하였다. 獨立新聞을 통하여서 保健厚生關係의 啓蒙을 하고 그 執行者는 주로 警務局과 警務廳에서 하되 예전에 捕盜廳과는 전혀 달리 民衆의 保護와 指導를 하여야 함을 說明하고 百姓을 친구와 같이 생각하라고 官吏들부터 啓蒙하였다.

上水道가 必要함을 力說하고 民衆들이 自己집과 그 周圍를 淨潔하게 하고 汚物을 없애야 한다고 力說하고 그리하여야 傳染病이 없고 健康한 生活을 한다고 하였다. 또 新聞社를 통하여 夏期衛生에 대한 애기와 巡警들이 巡察하여 民衆에게 獎勵하고 沐浴湯을 多數 設置하여 身體를 정하게 하고 人口의 調査에 있어서 出生과 死亡申告를 받아서 동네의 事情을 파악하기를 說明하였다. 迷信打破를 強調하고 소 屠殺까지도 說明하였다.

다시 美國으로 追放된 後에 美西戰爭에서 大尉로 服務하였고 除隊後에 펜실베이니아大學醫科大學大學院에 다니며 Wistar研究所에서 研究에 從事하였다. Sears病院(cancer), York病院, 잔즈 합킨즈病院 등과 St. Joseph病院(리딩市)에서 病弱으로 轉轉하였는데 चेस्터病院에서는 皮膚科科長으로 있었다. 한편으로 開業을 하여서 獨立運動때 蕩盡했던 經濟의 困乏을 免하였다 (臨床病理專攻).

先生의 醫療生活에서 學問研究인 發表는 St. Joseph病院에 제1 次 世계의 症例報告를 보았는데

1. Sarcoma of Ovary in a Child,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ct., 1930.

2. A Epidemic of Trichinosis in Berk County. *Pennsylvania Medical Journal*, Oct., 1930.

3. Physical and Chemical Changes of Spinal Fluid as Diagnostic Aid for Spinal Tumor, *Pennsylvania Medical Journal*, Oct., 1931.

이 있음을 보아서 先生이 醫學研究 能力이 充分하시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先生의 一生을 통하여 볼 때에 獨立運動에 全力을 하시고 醫學은 美國에서 家族과 生活하는 데 有用했을 것 같다.

韓國의 東西醫學比較研究50年史

韓國東西醫學研究會 理事長 韓 昇 璉

우리나라에는 1876年(約 百年前) 韓日修好條約後 西醫學이 처음 合法的으로 日本을 經由하여 導入되었고 西

醫學의 行政制度가 實施된 것은 1894年(約 80年前) 甲午改革 後이다. 그러므로 140餘年 以來 우리 固有醫學으로서 發展해온 傳統的 漢方醫學과 西醫學이 並立하기 시작한 것은 約 一世紀가 된다.

이동안 漢方醫學을 現代化, 나아가서는 科學化하기 위한 時代의 自然趨勢에 依하여 東西兩醫學者들은 比較研究에 腐心해 왔으며 學術의 業績을 많이 남겨 놓았다. 이 業績들 가운데는 最近 50年에 걸쳐 더욱 括目할 만한 것이 많으므로 주로 이에 關한 史的 考證을 究明기로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特異한 東西醫療 二元制度를 1910年 韓日合併 後부터 現在까지 實施하고 있으며 先進國에서는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隣國 日本만 하더라도 明治維新 以來 約 100年間 一元化를 實施해온 까닭인지는 連斷하기 어려우나 우리와의 比較研究業績을 比해 보건대 日本은 全般的으로 先進性을 나타내고 있는 實情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保守의 傳統體制가 오래 維持되어 왔고 史的 與件이 이를 脫皮하기 어려웠으므로 東西醫人들로 하여금 比較研究의 環境造成이 不完全하였고, 따라서 研究機會가 逸失, 遮斷되어 온 여러가지 事緣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 醫人들은 이런 環境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學術交流를 위해 學會組織, 學術誌刊行, 學術大會 開催 等등의 事業을 不斷히 展開해 왔으며 比較研究의 崇高한 精神이 줄기차게 繼承되어 왔다.

이에 主要한 史實들을 들어 본다면 韓日合併 後부터 倭政時代에는 醫生에게 漢方醫療, 醫師에게 現代醫療를 各各 專擔케 하는 二元制가 實施되어 왔다. 解放 後에는 더욱 이 制度가 強化되어 醫生은 漢醫師로 昇格되고 醫師와 完全分離制度가 存續됨으로써 漢醫科大學의 設立, 同大學院創立과 漢醫學博士의 輩出까지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制度의 發展과 漢方教育問題는 人體의 疾病治療方法에 兩面이 있다는 事實을 肯定한다면 더욱 比較研究의 緊要性을 느끼게 한다.

여기에 돌이켜 보건대 이미 1923년에는 東西醫學研究會의 創設과 함께 「東西醫學原義」가 發刊되었으며, 全 29년에는 다시 東西醫學會로 組織이 強化되었으며, 全 47년에는 東洋醫藥誌가 刊行되었다. 全 62년에는 東洋醫藥大學(前 서울한의학大學)에 東西醫藥研究會가 設立되었고, 全 70년에 慶熙大學校에 慶熙東西醫學研究所, 全 71년에는 全國東西醫人들이 蹶起하여 일찌기 보기도 못한 汎國家的 團體로서 韓國東西醫學研究會를 創立하